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25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7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출범식 직후 사부대중이 모여 화이팅 구호를 외치는 모습.

"대학생 전법이 불교중흥"… 전국구 전법조직 문 열다

상월결사,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의 중흥이요, 한국불교의 중흥이 생명의 존엄과 세상의 평화로 이어짐을 실천해 가겠나이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법'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한 매머드급 전국구 전법 조직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했다.

상월결사 전법위원회는 향후 전국 400여 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생 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스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변대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화두 '대학생 전법'

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 전문 조직인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사)상월결사 창립총회에서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전문 조직 구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황과 전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와 교구장 간담회, 종정예하 · 총무원장 스님 보고 등을 통해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역 · 계층 아우르는 매머드 전국 조직

이날 출범한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지역과 계층 등을 아우르는 전국구 전법 조직체다. 증명으로 조계종 종정예하 원로의장, 총무원장 위원장 맡아 지역본부 등 위원 574명 위촉돼 "전국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목표

자승 스님 청년포교 활성화 원력 전국구 전법조직 구성으로 이어져 "대학생 전법, 불교 보배 양성 불사" 9월 5~6일 전법 방안 주제 워크숍



유정현 대불련 회장과 사부대중이 대학생 전법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계열 전법위원 △지도교수 전법위원 △일반 전법위원 등 총 574명의 출 · 재가자가 전법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전법위원들은 전국 400여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단계적으로 신설 ·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 디테일한 전법 계획 필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대학생 전법이 불교 중흥의 여정임을 분명히 하고 그 길에 모든 사부대중이 동참할 것을 발원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의 보배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며 "대학생들과 기존 불자들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수행과 보살행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월결사는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의 가치와 실천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오늘의 출범식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디테일한 대학생 전법 계획을 주문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한 진우 스님은 "젊은이들을 포교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벗어나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계획까지 촘촘히 세워서 정밀한 전략지침의 매뉴얼에 따라 포교전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이 지혜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학생 불자 활성화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생 불자 활성화는 종단 제37대 집행부의 최우선 종책인 '천년을 세우다'와 일맥상통한다"면서 "종단 또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불자 활성화 정책을 더하여 다양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은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기원했다. 사부대중은 "한국불교 현실 앞에 사부대중의 마음은 무겁지만 전법위원들의 원력과 대학생의 열정으로 희망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녹여내는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받들고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참된 주인공으로 내 삶 속에서 불교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오는 9월 5~6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대한 공의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수봉당 상진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